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3. 문장 (정답 및 해설)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05 언어

본문 69~7쪽

- 01 ② 02 ② 03 ② 04 ④
 05 ③ 06 ⑤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물은 얼음이 되었다.’에서 ‘물은’ 앞에 ‘차가운’을 삽입하면 ‘차가운 물은 얼음이 되었다.’가 된다. 여기에서 ‘차가운’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관형어이다. 관형어는 부속 성분으로, ‘차가운’이 삽입되어도 문장이 주성분으로만 구성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물은’ 앞에 ‘과연’을 삽입하면 ‘과연 물은 얼음이 되었다.’가 된다. 이 문장에서 ‘과연’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다.
 ③ ‘물은’을 ‘물이’로 바꾸면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된다. 이 문장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문장 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얼음이’를 ‘얼음으로’로 바꾸면 ‘물은 얼음으로 되었다.’가 된다. 이 문장에서 ‘얼음으로’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⑤ ‘되었다’를 ‘아니었다’로 바꾸면 ‘물은 얼음이 아니었다.’가 된다. 이 문장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필수 성분으로만 구성된다.

02 문장 성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어제는 온종일 함박눈만 내렸다.’나 ‘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의 ‘내리다’는 모두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잘 가던 손목시계까지 멈추었다.’의 ‘멈추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우리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의 ‘멈추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동생은 형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의 ‘놓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그 사람들은 개울에 다리를 놓았다.’의 ‘놓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 ‘우리는 수레를 뒤에서 힘껏 밀었다.’의 ‘밀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그 친구들은 나를 반장으로 밀었다.’의 ‘밀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⑤ ‘은행에서 고객의 집을 담보로 잡았다.’의 ‘잡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고, ‘잠복하던 경찰이 범행 현장을 잡았다.’의 ‘잡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03 문장 성분별 특성 - 관형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맨’은 ‘더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 아이는’의 ‘그’는 지시 관형사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③ ‘어머니의 옆을’의 ‘어머니의’는 체언 ‘어머니’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④ ‘학교 운동장에서’의 ‘학교’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은 체언으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⑤ ‘지는 달을’의 ‘지는’은 용언 어간 ‘지-’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형태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04 시간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지었다’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하지만 ㉡의 ‘생겼더라’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생겼더라’에서 ‘-더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미 ‘-더-’와 어미 ‘-라’가 결합한 말이다.
 ② ㉠의 ‘갈라진’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③ ㉡의 ‘땀났었는데’에서 선어말 어미 ‘-았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⑤ ㉠의 ‘어제’, ㉡의 ‘예전’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휘이다.

05 사동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는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어머니가 아들에게 약을 먹게 하였다.'와 같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에서도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우리가 오빠를 집에 남게 하였다.'와 같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먹었다'(먹-+ -이-+ -었-+ -다)에는 사동 접미사 '-이-'가, ㉡의 '남겼다'(남-+ -기-+ -었-+ -다)에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었다.
- ② ㉠의 사동문에는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인 '어머니'가 포함되었고, ㉡의 사동문에는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인 '우리'가 포함되었다.
- ④ ㉠, ㉡ 모두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두 자리이다. 한편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세 자리이다.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씩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인 '아들'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고,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인 '오빠'는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06 객체 높임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는 그때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보았다.'에서 '주무시는'은 안긴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 어휘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객체 높임 표현이 아닌 주체 높임 표현이 실현된 문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드렸다'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아버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② '모시고'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손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③ '여쭙어보니'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④ '뵈'는 안긴절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06 언어

본문 72~75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③

05 ⑤

06 ④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이다. '경치도 아름다웠다.'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이다. 그리고 '그는 대학생은 아니었다.'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두 자리이다. ㉠, ㉡의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개수가 3개이고, ㉡에서 주성분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개수가 3개이다.
- ② ㉠은 주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고, ㉡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두 문장은 모두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③ ㉠에는 '물도', ㉡에는 '빵을'이 목적어로 쓰였다.
- ④ ㉡에서 부속 성분인 '그에게'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에서 부속 성분인 '그'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 서술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본용언 한 개, 보조 용언 세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즉 '먹다'는 본용언, '싶다', '하다', '않다'는 모두 보조 용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먹고 갔다'에서 '먹다', '가다'는 모두 본용언이다.
- ② '먹지 않았다'에서 '먹다'는 본용언, '않다'는 보조 용언이다.
- ③ '먹고 있지 않았다'에서 '먹다'는 본용언, '있다', '않다'는 보조 용언이다.
- ④ '먹고 가지 않았다'에서 '먹다', '가다'는 본용언, '않다'는 보조 용언이다.

03 문장의 짜임과 활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절이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하지만 ㉠, ㉢, ㉣은 겹문장이기는 하지만 절을 안고 있지는 않다. '학생 1'은 '안긴절을 포함

한 겹문장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과 '㉡, ㉢, ㉣'의 두 부류로 문장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 ㉢, ㉣은 대등적 연결 어미로 앞 절과 뒤 절이 연결되어 있고, ㉡은 종속적 연결 어미로 앞 절과 뒤 절이 연결되어 있다. '학생 2'는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겹문장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 ㉢, ㉣'과 '㉡'의 두 부류로 문장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04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어떤 말이나 생각을 간접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은 '간접 인용절'이고,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용형은 '청유형'이다. 이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자고 말했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용형이 포함되지 않았다.
- ④ 어떤 말이나 생각을 간접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포함되지도 않았고,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용형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 ⑤ 어떤 말이나 생각을 간접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05 피동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배우다'는 '*배우이다/*배우히다/*배우리다/*배우기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듣다'는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되어 피동사 '들리다'로 쓰일 수 있다. 다만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에서는 '들렸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면 어법에 맞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해당 문맥에서는 피동사가 쓰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④ ㉠에 제시된 예가 적절하지 않다.
- ③ ㉡, ㉢에 제시된 예가 모두 적절하지 않다.

06 부정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 '동생은 안 귀엽다.'와 같이 짧은 부정을 통해 '안'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다.
- b. 짧은 부정을 통한 '안' 부정문인 '동생은 안 귀엽다.'에서 '동생

은 결코 안 귀엽다.'와 같이 주어 뒤에 '결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긴 부정을 통한 '안' 부정문인 '동생은 귀엽지 않다.'에서 '동생은 결코 귀엽지 않다.'와 같이 주어 뒤에 '결코'가 쓰일 수 있다.

c. '동생은 귀엽지 않다.'처럼 긴 부정을 통해 '안' 부정문으로, '그는 교육자답지 못하다.'처럼 긴 부정을 통해 '못'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d. '동생은 귀엽지 않다.'에서 '동생은 전혀 귀엽지 않다.'로 쓰일 수 있다. 또한 '그는 교육자답지 않다.'에서 '그는 전혀 교육자답지 않다.'로 쓰일 수 있다. 이로 보아 '안' 부정문이든 '못' 부정문이든 긴 부정일 때 주어 뒤에 '전혀'가 쓰일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수능개념

EBS 대표강사들과 함께 하는
수능의 개념을 잡아주는 필수 기본서

07 언어

본문 76~78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④
05 ② 06 ③

01 문장 성분별 특성 - 주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에서 '정부에서'는 체언 '정부'에 격 조사 '에서'가 붙은 주어이다.
㉡ '선생님께서 오시니 학생들이 인사를 했다.'에서 '선생님께서'는 체언 '선생님'에 격 조사 '께서'가 붙은 주어이다.
㉢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리니 갈 수 없었다.'에서 '밤도'는 체언 '밤'에 보조사 '도'가 붙은 주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오빠가 장학생이 아니라니 정말 의외였다.'에서 '장학생이'는 체언 '장학생'에 격 조사 '이'가 붙은 말로, 주어가 아니라 보어에 해당한다.

02 문장의 짜임과 활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의 '그가 냉소적인'은 관형사절로, '것'을 수식하고 있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어의 형식으로 나타낸 서술절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사태가 진정되기'는 명사절로, 보조사 '만'이 결합되어 있다.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았지만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의 '사태가 진정되기'는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고, ㉡의 '그가 냉소적인'도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두 절 모두 필수 성분을 다 갖추고 있다.
④ ㉠의 '무표정한', ㉢의 '학교로 뛰어가던'은 관형사절로, '무표정한'에는 주어인 '그가'가, '학교로 뛰어가던'에는 주어인 '그들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의 '가감 없이'와 ㉢의 '학생들이 지나가도록'은 모두 부사절이다.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03 동작상 - 진행상, 완료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아저씨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는 문맥에 따라 넥타이를 매는 동작을 진행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넥타이를 매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

다. 이로 보아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 진행상과 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는 진행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③ '실험실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는 완료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④ '우리 형이 빵을 다 먹어 버렸다.'는 완료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⑤ '아름다운 장미꽃이 시들어 갔다.'는 진행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04 높임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수업이 없으신'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인 '선생님'과 관련된 '수업'을 높였고, '책이 많으신'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인 '할아버지'와 관련된 '책'을 높였다. 즉 두 문장에는 공통적으로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인 간접 주체 높임 표현이 실현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요'라는 보조사를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이 아닌 청자를 높였다. ㉡에서 보조사를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지 않다.
② ㉠, ㉡ 모두에서 특수한 어휘를 통해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지 않다.
③ ㉠에서 '여쭙어보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목적어가 아닌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였다. ㉡에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지 않다.
⑤ ㉠에서 '께'라는 부사격 조사를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였다. ㉡에서 부사격 조사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높이고 있지 않다.

05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녹여졌다'에는 사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 피동이 사용되었다. 이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에는 피동 접미사가 두 번 결합된 서술어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졌다.'를 '형'이 주어인 능동문으로 바꾸

면 ‘형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가 된다. 이처럼 문장에 목적어 ‘그림을’이 포함된다.

③ ‘용광로에서 쇠가 녹여졌다.’를 ‘그’가 주어인 문장으로 바꾸면 ‘그가 용광로에서 쇠를 녹였다.’가 된다. 바뀐 문장은 사동문이다.

④ ‘외삼촌이 이삿짐을 옮겼다.’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사동문이다. 하지만 대응되는 주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⑤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졌다.’와 ‘용광로에서 쇠가 녹여졌다.’의 ‘그려졌다’, ‘녹여졌다’는 용언 어간에 ‘-어지-’가 결합된 ‘-어지다’ 피동이 사용되었다.

06 인용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시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제 승찬이는 나에게 오늘 자기는 영화관에 안 갈 것 같다고 했다.’가 된다. 밑줄 친 부분에서는 직접 인용에서의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에서 ‘오늘’로 바뀌었고, 직접 인용에서의 인칭 표현 ‘나’가 간접 인용에서 ‘자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간 표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인칭 표현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인칭 표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시간 표현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시간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부정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인칭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부정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언어

본문 79~82쪽

- 01 ① 02 ⑤ 03 ④ 04 ①
- 05 ③ 06 ④

01 통일성, 응집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소년’은 뒤 문장에서 ‘그’로 재사용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녀’는 수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대명사 ‘그’뿐 아니라 지시 관형사 ‘그’가 붙은 ‘그 소년’도 수용어로 쓰일 수 있다.
- ③ ‘이거’는 ‘휴대 전화’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며, 앞에 나온 ‘휴대 전화’가 뒤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인 말로 대체된 것이다.
- ④ 앞 문장에 나온 ‘강릉’을 뒤 문장에서 ‘거기’로 대체한 것으로, 이때 수용어인 ‘거기’는 ‘강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우리 할머니’를 재사용하는 말이 생략된 문장이다.

02 통일성, 응집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손톱’은 ‘손’의 하위어가 아니다. ㉞은 ‘손톱’과 ‘손’이라는 부분-전체 관계에 기대어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피부’와 ‘살갓’이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친구’와 ‘벗’이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볼’과 ‘얼굴’이 부분-전체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강아지’가 ‘동물’로 재사용된 것으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어인 ‘동물’이 하위어인 ‘강아지’의 뒤에 오고 있다.

03 담화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거’가 지시하는 대상은 동생이 냉장고에서 꺼내고 있는 우유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언어 05

문장 1

본문 68~7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선생님, 저 지금 집에 가도 돼요?’에서 ‘선생님’은 단어인 ‘선생님’이 별도의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독립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의 주어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지금’은 부사로 단어이며, ‘가도’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무슨 책’은 ‘책’을 꾸며 주는 말인 ‘무슨’이 ‘책’ 앞에 와서 구로 확장된 것이다. ‘무슨 책’은 조사와의 결합 없이 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④ ‘요즘 읽는’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절이며, ‘책’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소설이야’는 명사 ‘소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소설이다’의 활용형으로, 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 서술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듣고 있어 봐’는 본용언 ‘듣다’와 보조 용언 ‘있다’, ‘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서술어이다.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에,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망가졌네’는 동사 ‘망가지다’의 어간 ‘망가지-’에 어미 ‘-었-’, ‘-네’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② ‘아름다웠다’는 형용사 ‘아름답다’의 어간 ‘아름답-’에 어미 ‘-었-’, ‘-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③ ‘걱정이다’는 명사 ‘걱정’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④ ‘먹지 않았다’는 본용언 ‘먹다’와 보조 용언 ‘않다’가 어미 ‘-지’에 의해 매개된 형태로, 하나의 서술어이다.

03 문장 성분별 특성 - 부사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크게’는 ‘손상된’을, ‘오늘’은 ‘발표된’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둘 다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말’은 ‘진품이라면’, ‘거의’는 ‘보존하고 있습니다’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② ‘아주’는 ‘오랜’을, ‘참’은 ‘잘’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④ ‘만약’은 ‘이 항아리가 정말 진품이라면’, ‘불행히도’는 ‘이것이 참 잘 만들어진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⑤ ‘땀’은 ‘빛깔’과 ‘형태’를 접속해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04 문장 차원의 오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내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정말로 사랑해 준’, ‘동시에 내게 상처를 주기도’ 등에서 보듯이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음악이나 영화를 보는 것’에서 ‘음악’에 대응하는 서술어 ‘듣거나’ 따위가 빠진 문장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별일 없을 때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내 취미야.’ 따위로 수정할 수 있다.
- ② ‘내가 종업원에게 주문하고 나자’에서 ‘주문하고’의 목적어 ‘커피를’ 따위가 빠진 문장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내가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나자 그녀가 자기 소개를 했다.’ 따위로 수정할 수 있다.
- ③ 주어인 ‘내가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은’과 서술어 ‘미루지 말자’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내가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것이다.’ 따위로 수정할 수 있다.
- ⑤ ‘그’ 뒤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그의’가 ‘접시’를 꾸며 주는 관형어가 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아내는 남편에게 고기도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그의 접시에 고기를 더 담아 주었다.’ 따위로 수정할 수 있다.

05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주는’은 타동사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마당에서’는 ‘주는’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당에서’를 제거해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는’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는 ‘마당에서’가 아니라 ‘개에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반짝이네’는 자동사로,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부사어인 ‘굉장히’는 필수적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밝았다’는 형용사로,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부사어인 ‘초저녁부터’와 ‘휘영청’은 모두 필수적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아니고’는 형용사로,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보어인 ‘2번이’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⑤ ‘삼을’은 타동사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부사어 ‘전화위복의 계기로’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⑤ ‘정책 실수로 기업의 재정이 크게 다쳤다.’에서 ‘다쳤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나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에서 ‘다쳤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06 문장 성분별 특성 - 서술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다.’에서 ‘되었다’와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에서 ‘되고’는 모두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계가 열두 시에 멈추다.’에서 ‘멈추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그는 기계를 잠시 멈추었다.’에서 ‘멈추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③ ‘조직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에서 ‘움직이고’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노인은 상반신을 움직여 겨우 일어났다.’에서 ‘움직여’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④ ‘할머니의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다.’에서 ‘휘었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소년은 우산살을 휘어 고리를 만들었다.’에서 ‘휘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어휘로 판가를 나는 수능 등급
지문·발문·선지의 어휘 총망라 수록!

언어 06

문장 ②

본문 72~75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②

06 ④

01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철수는 어제 영수와 서로 싸웠다.’는 주어 ‘철수는’, 서술어가 ‘싸웠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싸우다’의 경우 ‘와/과’가 결합한 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때 ‘와/과’는 상대적으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 아기가 이제야 잔다.’는 주어 ‘그 아기가’, 서술어가 ‘잔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백두산은 장엄하고 금강산은 아름답다.’는 ‘백두산은 장엄하고’와 ‘금강산은 아름답다.’라는 두 개의 절이 이어진 문장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나는 가을이 왔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는 ‘가을이 왔음’이라는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선생님은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라는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한다.

02 문장 성분의 단계적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안긴문장 ‘인정이 많으신’에는 주어 ‘할아버지가’가 생략되어 있다. 참고로, ‘할아버지가 인정이 많으시다.’는 ‘인정이 많으시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의 안긴문장 ‘어머니가 만드신’에는 목적어 ‘간식’이 생략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안은문장의 목적어는 ‘인정이 많으신 할아버지를’이고, 안긴문장 ‘인정이 많으신’에는 목적어가 없다. 따라서 ‘할아버지를’을 안긴문장의 목적어이자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그가’는 ‘아님’의 주어이고, ‘범인이’는 ‘아님’의 보어이다. 따라서 ‘그가’와 ‘범인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라는 설

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어머니가 만드신’은 체언인 ‘간식’을 수식하고 있지만, ‘맛있게’는 ‘먹고 있었다’를 수식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에는 안은문장 속에 부사어 ‘맛있게’가 있지만, ㉠에는 안긴문장 ‘그가 범인이 아님’ 속에 부사어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이어진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에 ‘-았-’, ‘-겠-’ 등의 선어말 어미는 쓰일 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시려고 집을 나서셨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는 쓰일 수 있으므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는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은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는 동사와만 결합할 뿐 형용사나 ‘체언+이다’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 뒤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문장에서는 앞 뒤 절의 주어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대학을 졸업하기’는 목적으로 기능하는 명사절이 아니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기’는 뒤에 오는 체언 ‘전’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형이 잘못을 저질렀음’은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② ‘그녀의 판단이 옳았음’은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④ ‘일 년 후에 귀국하기’는 조사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⑤ ‘초보자가 배우기’는 조사 ‘에’, ‘도’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05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형이 나에게 물려준 옷이 마음에 든다.’에는 관형사절 ‘형이 나에게 물려준’에서 목적어로 해석되는 ‘옷을’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생략된 체인의 문장 성분을 부사어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 고양이 가 잡은 쥐가 많다.’에는 관형사절 ‘그 고양이 가 잡은’에서 목적어로 해석되는 ‘쥐를’이 생략되어 있다.
- ③ ‘나는 어제 결혼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에는 관형사절 ‘어제 결혼한’에서 주어로 해석되는 ‘그들은’이 생략되어 있다.
- ④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에는 관형사절 ‘시대에 뒤떨어진’에서 주어로 해석되는 ‘사고방식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내가 아까 빵을 산 제과점은 이 지역의 명물이다.’에는 관형사절 ‘내가 아까 빵을 산’에서 부사어로 해석되는 ‘제과점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06 문장 종결 표현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 쓰인 ‘-자’는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청유형 종결 어미이다. ㉡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다 같이 서울로 출발’할 것을 요청 내지 제안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청자에게 단독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 쓰인 ‘-다’는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 어미이다. ㉠에서 화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는 내용을 단순히 진술하고 있다.
- ② ㉣에 쓰인 ‘-느냐’는 물음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 어미이다. ㉡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아직도 밖에 비가 오’는지를 질문하여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에 쓰인 ‘-어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다. ㉡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손’을 ‘씻’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⑤ ㉥에 쓰인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감탄형 종결 어미로,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에서 화자는 ‘여기 경치가 참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언어 07	문장 ③	본문 76~80쪽
01 ③	02 ⑤	03 ①
05 ④	06 ②	04 ③

01 시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숙제하는’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로,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도와주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현재로 해석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먹고’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이 나,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마셨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먹는’ 행위는 현재로 해석된다.
- ② ‘밝은’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이 나,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서 있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밝은’ 상태는 현재로 해석된다.
- ④ ‘들으면서’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하신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듣는’ 행위가 현재로 해석된다.
- ⑤ ‘웃는’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맞이하고 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웃는’ 행위가 현재로 해석된다.

02 피동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는 사동문의 예이므로, ㉡과 같은 피동문의 예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산이 눈에 덮였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눈이 산을 덮었다.’가,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가 되어, 각각 ㉠과 ㉡의 부사어가 능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종이가 갈기갈기 찢겼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다.’가,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렸다.’가 되어, 각각 ㉢과 ㉣의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에서 ‘그려졌다’는 ‘그리다’의 어간 ‘그리-’에 연결 어미 ‘-어’와 ‘-지다’가 결합함으로써 구성된 형태이다.

④ ‘동생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라는 문장은 피동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응되는 능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03 사동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의 ‘반복하다’의 사동사로는 ‘반복시키다’를 쓸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나. ‘물러났던 관직이나 직업에 다시 종사하다.’라는 뜻의 ‘복직하다’의 사동사로는 ‘복직시키다’를 쓸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다. ‘제외시키다’는 ‘따로 떼어 내어 한데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제외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므로, 일종의 과잉 사동에 해당하여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르. ‘소개시키다’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일이 진행되게 주선하다.’라는 뜻의 ‘소개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므로, 일종의 과잉 사동에 해당하여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04 높임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께서’는 주어의 지시 대상(‘기분 나빠하는 분들’)을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가 사용된 것이므로, 목적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저)’는 말하는 이가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상대방인 ‘선생님’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② ‘손님들께’에는 부사어의 지시 대상(‘손님들’)을 높이기 위한 격 조사 ‘께’가 사용되었다.

④ ‘하셨는데’에는 주어의 지시 대상(‘점장님’)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⑤ ‘그렇군요’에는 상대방인 ‘선생님’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사용되었다.

05 간접 높임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간접 높임이란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 가족 등을 높이는 형식을 통해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커피’는 높임 대상인 ‘손님’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주어가

‘커피’인데 불필요하게 ‘-시-’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간접 높임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손님께서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에는 이미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가 쓰이고 있다.

② 주체 높임에는 선어말 어미 ‘-시-’와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주문하신’의 주어는 ‘손님’이므로 주어가 사물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담화 상황에 따라서 사물에 ‘-시-’를 꼭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⑤ ‘손님’ 뒤에는 ‘께서’가 이미 사용되었고, ‘커피’ 뒤에 ‘께서’가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부정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네 실수는 비단 그것만이다.”와 달리, “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다.”에서 ‘아니다’는 ‘비단’과 잘 어울리고 있는 것(“네 실수는 비단 그것만이 아니다.”)으로 보아, “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라.”에서 “물러서지 마라”는 “결코”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마라.”)으로 보아,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라.”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남편은 아침을 안 먹는다.”에서 “안 먹는다”는 “도무지”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남편은 아침을 도무지 안 먹는다.”)으로 보아, “남편은 아침을 안 먹는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그 제안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별로”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제안은 비현실적이다.”에서 “비현실적이다”는 “별로”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그 제안은 별로 비현실적이다.”)으로 보아, “그 제안은 비현실적이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⑤ “통계 수치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그다지”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과 달리, “통계 수치가 부정확하다.”에서 “부정확하다”는 “그다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통계 수치가 그다지 부정확하다.”)으로 보아, “통계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④ ㄹ의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등의 기능을 하는 격 조사이다. ㄹ에는 ‘위에서 아래’라는 움직임의 방향이 나타나 있으므로 ‘에게’를 ‘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4 품사의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다. 말하는 이에 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는 ‘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그’는 삼인칭 대명사로,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아닌 제삼자인 ‘오빠’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 ③ ㉢의 ‘그’는 지시 대명사로, 앞에서 이미 언급된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 ④ ㉣의 ‘저’는 삼인칭 대명사로,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자기’보다 낮잡는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며, 앞에서 이미 언급된 ‘시동생’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 ⑤ ㉤의 ‘저’는 일인칭 대명사로,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말하는 이가 ‘총장’을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05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어야 하므로 ‘광희문’에서 ‘희’는 ‘hi’가 아니라 ‘hui’로 적어야 옳다. 즉 ‘광희문’은 ‘Gwanghuimun’이 옳은 표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월곶[월곶]’을 표기하면 ‘Wolgot’가 적절하다.
- ② ‘ㄹㄹ’은 ‘ll’로 적는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울릉[울릉]’을 표기하면 ‘Ulleung’가 적절하다.
- ③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영동[영동]’을

표기하면 ‘Yeongdong’가 적절하다.

⑤ ‘ㄹㄹ’은 ‘ll’로 적는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대관령[대:괘령]’을 표기하면 ‘Daegwallyeong’가 적절하다.

언어

05

문장 ①

본문 | 65~67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1 문장 성분별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밟다’는 ‘발을 들었다 놓으면서 어떤 대상 위에 대고 누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서술어로, ‘발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등갯길에’와 ‘지하철역에서’는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수의적 부사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드리다’는 문장에서 ‘주다’의 높임말로 사용될 때 ‘~에/에게 ~을/를 드리다’의 형식으로 쓰인다. 따라서 ‘할머니께’와 같이 대상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 ② ‘비슷하다’는 문장에서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따위가 똑같은지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철수와’와 같이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 ③ ‘참가하다’는 문장에서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회의에’와 같이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 ⑤ ‘삼다’는 문장에서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계기로’와 같이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02 문장의 짜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미 코끼리는’이다. 반면에 안긴문장인 ‘덩치가 매우 크다.’의 주어는 ‘덩치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나는 빵을 먹었다.’와 ‘(나는) 우유를 마셨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 ② ㉠은 ‘영희는 물감으로 꽃을 그렸다.’라는 홀문장이 ‘물감이) 파랗다.’라는 홀문장을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때 용언 ‘파랗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한 ‘파란’이 ‘물감’을 꾸며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우유를 마셨다.’의 주어 ‘나는’이 생략되어 있다. ㉠의 ‘파란’은 ‘물감이) 파랗다.’라는 문장에서 주어 ‘물감’이 생략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한 것이다.
- ⑤ ㉢은 ‘동생은’이라는 주어와 ‘한다’라는 서술어가 쓰인 하나의 홀문장에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03 문장의 짜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과 ㉢은 모두 동격 관형사절이다. 둘의 차이점은 ㉠은 문장의 종결형에 ‘-(고 하)는’이 붙은 것이고, ㉢은 서술어인 용언의 어간 뒤에 ‘-니’이 붙은 것이라는 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아이가) 큰 소리로 울다.’라는 문장에서 문장을 이루는 필수 성분인 ‘아이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 ② ㉠과 ㉢은 모두 동격 관형사절이다. 관형사절 ㉠은 그것이 꾸며 주는 체언인 ‘사실’의 내용을 나타내고, 관형사절 ㉢은 그것이 꾸며 주는 체언인 ‘소문’의 내용을 나타낸다.
- ③ ㉠, ㉢, ㉣은 모두 동격 관형사절로서 관형사절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다.
- ④ ㉡, ㉢, ㉣은 관계 관형사절이다. ㉡에는 관형사절에서 ‘아이가’라는 주어가, ㉢에는 ‘철쭉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에는 관형사절에서 ‘책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04 피동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구름 걷힌(구름이 걷히다.)’은 피동문이지만 이에 대응되는 ‘(누군가가) 구름을 걷다.’라는 능동문을 만들지 못하고 피동문의 형태로만 사용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누군가가) 글씨를 쓰다.’라는 능동문에서 ‘쓰다’의 어간에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문이므로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의미가 분명하다.
- ② ‘(누군가가) (창문을) 열다.’라는 능동문에서 ‘열다’의 어간

에 피동 접미사 ‘-리-’를 붙이고 관형사형으로 만든 피동문이므로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의미가 분명하다.

- ④ ‘(누군가가) 못을 막다.’라는 능동문에서 ‘막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든 피동문을 부정문으로 만든 문장이므로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의미가 분명하다.

- ⑤ ‘(누군가가) 인부 다섯 명을 구조하다.’라는 능동문에서 ‘구조하다’의 ‘구조’에 접미사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문이므로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의미가 분명하다.

05 높임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의 높임 표현을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시라고’를 영수의 행위와 관련된 형태인 ‘오라고’로 고쳐 써야 한다. ‘하셨어요’를 ‘하셨습니다’라고 쓸 경우 청자인 ‘영수’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주체 높임은 용언의 어간 ‘쓰-’ 뒤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 것,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로 용언 ‘주무시다’를 사용한 것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또한 주격 조사 ‘께서’도 주어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
- ② ㉠의 첫 문장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주체인 ‘김 선생님’이므로 ‘계시다’라는 용언을 사용했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긴밀하게 관련된 대상인 ‘따님’에 대해 ‘있으시다’라고 하여 ‘-(으)시-’를 통해 간접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습니다’라는 하십시오체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③ ㉠에서 직접 높임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김 선생님께서는 댁에 계시다.’이다.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직접 높임 표현에 사용된 용언 ‘계시다’ 앞에 ‘안’을 붙여서 ‘안 계시다’라고 쓰거나, 용언의 어간 뒤에 ‘-지 않다’를 붙여 ‘계시지 않다’라고 쓰면 된다.
- ④ ㉢에서는 ‘여쭌어보도록’이라는 특수한 용언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부사격 조사 ‘께’도 부사어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



언어

06

문장 2

본문 | 68~70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1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내가 어제 구입한 시집을 동생이 모르게 서랍에 넣었다.'에서 '동생이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다. 그러나 '그분이 재배한 복숭아는 맛이 없었으나 모양이 예뻐다.'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 안겨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의 '맛이 없었으나', '모양이 예뻐다', ㄴ의 '마음이 어질었고', '친구도 많았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에 해당한다.
- ② ㄱ은 대등적 연결 어미 '-으나'를 통해, ㄴ은 '-고'를 통해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 ④ ㄱ에서 '그분이 재배한'은 체언 '복숭아'를, ㄴ에서 '훌륭한'은 체언 '친구'를, ㄷ에서 '내가 어제 구입한'은 체언 '시집'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 안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ㄱ에서 관형사절 '그분이 재배한'에는 '복숭아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ㄴ에서 관형사절 '훌륭한'에는 '친구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ㄷ에서 관형사절 '내가 어제 구입한'에는 '시집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아름다운', '그', '단아한'은 모두 관형어이다. 하지만 이들은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다.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관형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름다운', '단아한'은 모두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관형어로 쓰였다.
- ②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다. '저', '그' 모두 품사가 관형사인 단어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였다.
- ③ '저', '아름다운', '그', '단아한'은 모두 관형어이다. '저 아름답다운', '그 단아한'에는 각각 관형어가 연달아 쓰였다.

⑤ '의'는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관형격 조사이다. '시내의', '관람객의'에서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가 관형어로 쓰였다.

03 인용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밑줄 친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큰따옴표가 없어지며 '제'는 '자기'로, '내일'은 '오늘'로, '여기'는 '거기'로, '있을게요'는 '있겠다'로, '라고'는 '고'로 바뀐다. 즉 '어제 아들은 지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나에게 "제가 내일 여기에 있을게요."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어제 아들은 지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나에게 자기가 오늘 거기에 있겠다고 말했다.'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를 '자기'로, '여기'를 '거기'로 바꾸어야 적절하다.
- ② '제'를 '자기'로, '내일'을 '오늘'로 바꾸어야 적절하다.
- ④ '내일'을 '오늘'로, '여기'를 '거기'로 바꾸어야 적절하다.
- ⑤ '내일'을 '오늘'로 바꾸어야 적절하다.

04 시간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어제'는 '오늘의 바로 하루 전에.'라는 뜻의 단어, '올해'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해.'라는 뜻의 단어이다. '어제'나 '올해' 모두 시간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완료상이나 진행상과 같은 동작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더-'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함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갈더라'에서 '-더-'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은 과거 시제이다. '주셨어'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극심한'과 '떨어진'에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있다. 관형사형 어미 '-ㄴ'은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르'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④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지었다’에서 ‘-었-’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05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칭얼대던 아이가 결국 엄마 등에 업혔다.’의 ‘업혔다(업-+-히-+-었-+-다)’에서 ‘-히-’는 피동 접미사에 해당한다. 즉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말이므로, ㉠이 아닌 ㉡의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제 큰오빠는 뒷집 개에게 팔을 물렸다.’에서 ‘물렸다’는 ‘물-+-리-+-었-+-다’로 분석된다.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것이다.

② ‘그 형은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반혔다.’에서 ‘반혔다’는 ‘받-+-히-+-었-+-다’로 분석된다.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것이다.

③ ‘그는 우리 동생과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에서 ‘날렸다’는 ‘날-+-리-+-었-+-다’로 분석된다.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것이다.

⑤ ‘우리 형은 그 아이들에게 시집을 읽혔다.’에서 ‘읽혔다’는 ‘읽-+-히-+-었-+-다’로 분석된다.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것이다.

는 것은 주격 조사 ‘께서’이지, 보조사 ‘는’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친구가 빵을 먹었다.’의 ‘친구가’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하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친구가 빵을 먹었다.’와 ‘빵을 친구가 먹었다.’를 비교해 보면, ‘빵을 친구가 먹었다.’는 목적어가 주어 앞에 쓰인 것으로 이처럼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③ ‘친구가 빵을 먹었다.’와 ‘친구도 빵을 먹었다.’를 비교해 보면, ‘친구도’는 체언 뒤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친구가 빵을 먹었다.’와 ‘언니 빵을 진짜 좋아하잖아.’를 비교해 보면, ‘언니’는 주격 조사 없이도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02 문장의 짜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모자를 쓴’의 주어는 ‘남자가’이고 ‘키가 크고’ 속에서의 주어는 ‘키가’이므로, ㉡의 주어와 ㉢ 속에서의 주어는 서로 다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향기가 좋다’라는 절은 문장 (가)에서 주어 ‘장미가’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② ‘향기가 좋다’ 속에서의 주어는 ‘향기가’이고, 문장 (가)의 주어는 ‘장미가’이다.

③ ‘키가 크고 모자를 쓴’은 ‘-고’라는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다.

⑤ ‘외삼촌이다’는 명사 ‘외삼촌’이 ‘이다’와 결합해 문장 (나)의 서술어로 쓰인 것이다.

03 문장의 짜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비가 내리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주성분인 목적어로 쓰이고 있지만, ‘병원에 가기’는 조사와의 결합 없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조사와 직접 결합해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가 범인임’은 ‘그가 범인이-’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하여 명사절로 쓰이고 있고, ‘비가 내리기’는 ‘비가 내리-’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언어	07	문장 ③	본문 71~73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④

01 문장 성분별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어머니께서는 아침으로 늘 빵을 드셨다.’에서 주체를 높이



- ③ ‘병원에 가기’에는 주어 ‘내가’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고향에 돌아온’에는 주어 ‘내가’가 드러나 있다.
- ④ ‘내가 고향에 돌아온’은 관형사형 어미 ‘-니’이 결합한 관형사절이다. 조사와의 결합 없이, ‘사실’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학교 앞을 지나가던’은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한 관형사절이다. 조사와의 결합 없이, ‘여학생’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⑤ ‘학교 앞을 지나가던’은 관형어로 생략할 수 있지만, ‘그가 범인임’은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성분인 주어로 쓰였으므로 생략하기 어렵다.

04 사동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사동문 ‘형이 집을 집 안으로 옮긴다.’의 서술어 ‘옮긴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의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어야 하며, 사동문의 목적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이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꾸기 위해 *‘집이 집 안으로 옮다.’를 만들어 보면, 주어(‘집이’)와 부사어(‘집 안으로’)를 가지는 두 자리 서술어 ‘옮다’를 통해 주동문을 만드는 것이 문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사동문 ‘형이 집을 집 안으로 옮긴다.’는 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존재하지 않아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동문 ‘엄마가 아기를 재운다.’의 서술어 ‘재운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의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어야 하며, 사동문의 목적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이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꾸어 보면, 주동문 ‘아기가 잔다.’를 만들 수 있다.
- ② 사동문 ‘아이들이 팽이를 돌린다.’의 서술어 ‘돌린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의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어야 하며, 사동문의 목적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이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꾸어 보면, 주동문 ‘팽이가 돈다.’를 만들 수 있다.
- ④ 사동문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힌다.’의 서술어 ‘읽힌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의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어야 하며, 사동문의 부사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이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꾸어 보면, 주동문 ‘학생이 책을 읽는다.’를 만들 수 있다.

⑤ 사동문 ‘따뜻한 햇살이 고드름을 녹인다.’의 서술어 ‘녹인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의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어야 하며, 사동문의 목적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이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꾸어 보면, 주동문 ‘고드름이 녹다.’를 만들 수 있다.

05 부정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안’ 부정문은 어떤 상태를 단순히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다. ‘꽃이 안 예쁘다.’와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는 주체의 의지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단순히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안’ 부정문이 사용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안’, ‘못’이 서술어 앞에 쓰이는 짧은 부정문과, 부정 보조 용언 구성 ‘(-지) 않다/아니하다, 못하다’가 본용언 뒤에 쓰이는 긴 부정문이 있다.
- ②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문에는 ‘마라, 말자’와 같이 ‘-지 말다’ 형태의 부정 표현을 사용한다.
- ③ 형용사가 서술어인 경우에는 대체로 짧은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없다. 그러나 긴 ‘못’ 부정문은 쓸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기대치로 하여 그 기대치에 못 미침을 의미하는 문장이 된다.
- ⑤ 주체의 의지가 아닌, 주체의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못’ 부정문이 사용된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문항과 유사도가 높은 기출문제
2022학년도 수능을 예측한다



㉔ ㉕ ‘늑대와’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고, ㉖ ‘개와’의 ‘와’는 접속 조사이다.

04 단어의 의미 관계

답 ㉔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 ‘예심을 거친 동생’과 ‘중학교를 거친 학생’에서 ‘거친’은 모두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동일한 단어이므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가는 빗줄기’에서 ‘가는’은 ‘가늘-’에 ‘-니’이 결합된 형태이고, ‘발음 가는 동생’에서 ‘가는’은 ‘갈-’에 ‘-는’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단어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㉓ ‘친구 집에서 며칠 묵고[묵꼬]’에서 ‘묵고[묵꼬]’는 ‘묵-’에 ‘-고’가 결합된 형태이고, ‘염소를 묶고[묶꼬]’에서 ‘묶고[묶꼬]’는 ‘묶-’에 ‘-고’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단어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㉕ ‘회복이 느린[느린]’에서 ‘느린[느린]’은 ‘느리-’에 ‘-니’이 결합된 형태이고, ‘길이를 늘인[늘린]’에서 ‘늘인[늘린]’은 ‘늘이-’에 ‘-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단어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㉗ ‘꼭 닫혀서[다쳐서]’에서 ‘닫혀서[다쳐서]’는 ‘닫히-’에 ‘-어서’가 결합된 형태이고, ‘허리를 다쳐서[다쳐서]’에서 ‘다쳐서[다쳐서]’는 ‘다치-’에 ‘-어서’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단어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05 띄어쓰기에 관한 조항-제47항

답 ㉓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㉑ ‘(배가 고프다) 못해’에서 ‘못해’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㉔ ‘(맛이 예전보다) 못함’에서 ‘못하다’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㉒ ‘(아무리) 못해도’에서 ‘못해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를 뜻하는 형용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못 해도’로 띄어 쓴 것은 잘못이다.

㉕ ‘(잊지도) 못 하니’는 ‘-지 못하다’ 구성으로 여기서 ‘못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뜻하는 보조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못 하다’로 띄어 쓴 것은 잘못이다.



01 ㉔

02 ㉔

03 ㉑

04 ㉓

05 ㉓

01 문장 성분

답 ㉔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 ‘강조해야 한다’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주어 ‘내가 ... 점은’과 호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 예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여간’은 일반적으로 부정어 ‘안, 못’이나 ‘않다, 못하다’ 등의 말과 호응하는 말이므로, ‘여간 어려워져’를 ‘여간 어렵지 않아서’와 같이 써야 문법적이게 된다.

㉓ ‘지원서 서식’은 서술어 ‘내려받다’의 목적어인데, 문장 어디에 있던 간에 역시 목적어로서 ‘내려받으세요’와 잘 호응한다.

㉕ ‘모름지기’는 일반적으로 ‘-어야 한다’와 같은 의무나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한다. 그러므로 예문의 서술어 ‘알아야 한다’와 잘 호응한다.

㉗ 목적어 ‘환경을’은 ‘변화시키기도 하고’와는 잘 호응하지만 ‘적응하기도 하면서’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문법적이다. ‘적응하기도 하면서’ 앞에 부사어 ‘환경에’를 써야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게 된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부사어

답 ㉕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㉕ 부사어 ‘아주’는 관형어(관형사) ‘새’를 꾸미고 부사어 ‘참’은 부사어 ‘유용하게’를 꾸민다. ‘참’이 ‘쓰고 있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참 쓰고 있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명사 ‘통’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은 ‘통에’는 부사어로 쓰인 것이고, ‘가득’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㉔ ‘답다’는 ‘누가 어디에 무엇을 답다’와 같은 문장을 구성해야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고, ㉑에서 ‘어디에’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통에’가 쓰였으므로 ‘통에’는 필수 성분이다. 그러나 ‘가득’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를 채워 주는 말이 아니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㉕ ‘다행히’는 ‘나는 돈 없이도 여행을 잘 다녀다’가 언급하는 사건이 다행스러웠다고 언급하는 부사어로서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잘’은 ‘다녔다’만을 꾸며 준다.

④ ‘돈 없이도’는 주어, 서술어를 갖춘 ‘돈(이) 없다’에 ‘-이’가 붙어 부사절이 된 후 보조사 ‘도’가 붙은 것으로서 ‘여행을 잘 다녔다’를 꾸며 준다.

03 문장의 짜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물이 끓으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절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아무런 준비도 없이’는 ‘여행’을 꾸며 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났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이 안은문장이라는 진술은 참이다.

③ 형이 발화한 말은 “그 일을 해 줘.” 동일 것이므로, ‘그 일을 해 달라고’가 형이 발화한 내용을 간접 인용한 절이다. ‘형이 나에게 그 일을 해 달라고’가 직접 인용되었다는 진술은 인용된 말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④ ㉡의 서술어는 ‘드러났다’이고 주어는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임’이다. ‘그 사람의 발언은 모두 거짓임’이 명사절로 안겨 있는 안은문장(겉문장)이다.

⑤ ㉢의 서술어는 ‘명언이다’이고 주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은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고, 이 관형사절에서 ‘인생은 짧(다)’와 ‘예술은 길다’는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04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거든’은 ‘-(으)면’과 마찬가지로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가정’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으)니까’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이유/원인’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② ‘-(으)면서’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동시 상황’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④ ‘-(으)려고’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목적/의도’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⑤ ‘-는데’는 앞 절이 뒤 절의 내용을 말하기 위한 ‘배경 상황’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05 안은문장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드넓은’이 ‘별판’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므로 B에 해당한

다. 이 경우 관형사절 속의 주어는 꾸밈을 받는 ‘별판’과 일치하므로 생략되었다.

㉡: ‘한국에서 오래 살기’가 명사절로 안겨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 명사절 속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 대상인 ‘저’와 일치하므로 생략되었다.

㉢: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이 명사절로 안겨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이 ‘소식’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 ‘날이 새도록’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였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고 안긴절인 부사절의 주어는 ‘날이’이다.

언어 06

본문 236~239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③

01 문장 성분별 특성-서술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높고 푸르다’는 ‘높다’와 ‘푸르다’가 모두 본용언으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서술어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갔었어’는 단일한 용언인 ‘가다’에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② ‘사서’는 단일한 용언인 ‘사다’에 연결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③ ‘이거야’는 ‘이것이야’의 구어적 표현으로 체언 ‘이것’과 ‘이다’의 활용형이 결합한 서술어이다.

④ ‘먹어 봐’는 본용언 ‘먹다’의 활용형 ‘먹어’에 보조 용언 ‘보다’의 활용형이 결합한 서술어이다.

02 문장 종결 표현의 종류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골라라’는 ‘고르다’에 ‘-아라’가 결합한 형태이고, ‘고르라’는 ‘-라’가 결합한 형태이다(‘골라라’는 ‘르’ 불규칙 동사로 활용 시 ‘고르-’가 ‘골르-’로 바뀐다.). 또한 ‘골라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직접 명령형이지만, ‘고르라’는 직접적 대면 상황이 아닌 인쇄 매체 등에서 사용되는 간접 명령형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꺼 줘라’는 ‘꺼 주다’의 ‘주-’에 ‘-어라’가 결합한 형태로 직접 명령형이며, ‘꺼라’도 ‘끄다’의 ‘끄-’에 ‘-어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다.
- ② ‘알라’는 ‘알다’의 ‘알-’에 ‘-라’가 결합한 간접 명령형이고, ‘알아라’는 ‘알-’에 ‘-아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다.
- ③ ‘되라’는 ‘되다’의 ‘되-’에 ‘-라’가 결합한 간접 명령형이고, ‘되어라’는 ‘되-’에 ‘-어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다.
- ⑤ ‘먹여라’는 ‘먹이다’의 ‘먹이-’에 ‘-어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고, ‘먹어라’는 ‘먹다’의 ‘먹-’에 ‘-어라’가 결합한 직접 명령형이다.

03 시간 표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생활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생활한’은 이 문장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이 문장에서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갑니다’는 현재 시제가 사용된 예로 항상 일어나는 일에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
- ④ 관형사절로 안길 때는 ‘있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있는’은 현재 시제이며, 이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다.
- ⑤ ‘나갈 것입니다’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ㄹ’과 의존 명사 ‘것’이 합쳐져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04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다. ‘보여지다’는 ‘보다’에 피동을 나타내는 ‘-이-’와 ‘-어지다’가 중복되어 결합된 표현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뜯기다’는 ‘뜯지 봉투가 뜯겨 있다.’에서처럼 피동사로도 쓰이고 ‘아이들에게 갈비를 뜯기다.’에서처럼 사동사로도 쓰인다.
- ③ ‘없다’의 피동 표현은 ‘-어지다’가 결합한 ‘없어지다’만이 가능하다.
- ④ ‘끓기다’는 ‘끓다’의 피동사이며, ‘끓다’의 사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먹다’의 사동 표현으로는 ‘먹이다’와 ‘먹게 하다’가 모두 가능하다.

05 동작상-진행상, 동작상-완료상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지다’는 ‘(얼룩이) 지고 있다.’가 완료상을 나타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들다’는 ‘짐을 들고 있다.’에서 짐을 드는 순간의 동작(진행상)과 짐을 드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 ② ‘매다’는 ‘넥타이를 매고 있다.’에서 넥타이를 매는 동작(진행상)과 넥타이를 매는 것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 ④ ‘짚다’는 ‘지팡이를 짚고 있다.’에서 지팡이를 짚는 순간의 동작(진행상)과 지팡이를 짚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 ⑤ ‘하다’는 ‘귀걸이를 하고 있다.’에서 귀걸이를 착용하는 동작(진행상)과 귀걸이를 하는 것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언어 07

본문 240~242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①

05 ⑤

01 용언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내려놓다, 가다, 말해 주다, 달리다, 나가 버리다’이다. ‘내려놓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쓰며, 그 자체로 하나의 용언(본용언)이다. 또한 ‘가다, 말하다, 달리다, 나가다’도 문장에서 홀로 원래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다. *‘말해서 주다’, *‘나가서 버렸다’라고 할 수 없고, *‘도서관 간다고 줘’, *‘동생이 버렸다’처럼 해당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주다, 버리다’는 보조 용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내려놓다’는 하나의 용언이다.
- ② ‘내려놓다’는 한 단어로, 이때 ‘놓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다.
- ④ ‘달려 나가 버렸다’에서 ‘나가다’는 ‘밖으로 이동하다’의 의미로 홀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다.
- ⑤ ‘내려놓다’는 한 단어이므로 이때 ‘놓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다. 또한 ‘달려 나가 버렸다’에서 ‘나가다’는 ‘밖으로 이동하다’의 의미로 홀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다.

02 높임 표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에서 사용된 ‘있다’의 높임 표현인 ‘계시다’는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부사어는 ‘할머니께’로, 지시하는 대상 ‘할머니’를 높임의 부사격 조사를 활용하여 높이고 있다.

③ ㉡의 ‘맑으시다’는 ‘할아버지’의 소유물인 ‘책’을 높이고 있으므로 간접 높임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에서는 ‘진지’, ‘드리다’, ㉡에서는 ‘계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⑤ ㉠, ㉡의 ‘드리셨다’, ‘맑으시다’에는 모두 선어말 어미 ‘-(으)시-’가 사용되었다.

03 시제-과거 시제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 ‘-았-/-었-’만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은 ㉡, ㉢이다. ㉡: ‘-았었-/-었었-’을 통해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에는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은 ㉠이다. ‘전화가 왔었다’는 과거에 전화가 왔던 것을 의미할 뿐, 현재에도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았었-/-었었-’을 통해 과거의 일을 표현한 문장으로 <보기 1>에서 ㉠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 ㉡에서 ‘있었다’는 동사 ‘있다’에 ‘-었-’이 결합된 표현으로 ‘-았었-/-었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는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았-/-었-’을 통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확실시되는 미래의 일을 표현한 것이므로,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에 사용된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의 회상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는 표현이므로 ㉢은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즉 ‘-대’에는 회상의 ‘-더-’의 의미가 없으므로 ㉢은 ㉢에 해당하는 예문이 아니다.

⑤ ㉡에서 ‘있었다’는 동사 ‘있다’에 ‘-었-’이 결합된 표현으로 ‘-았었-/-었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는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4 피동 표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주어지다’는 ‘주-’에 ‘-어지다’가 결합한 표현으로 ‘주다’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답기다’는 ‘답-’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형태이다.

③ ‘쌓이다’는 ‘쌓-’에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로, ‘쌓다’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로 만들 수 없고 ‘쌓게 하다’처럼 장형 사동만 만들 수 있다.

④ ‘믿기지 않다’에서 ‘-지’는 ‘않다’ 앞에서 사용되는 연결 어미이다. ‘-기-’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결합할 경우 ‘믿겨지지 않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⑤ ‘준비되다’는 명사 ‘준비’에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피동사이다.

05 부정 표현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 ‘밥을 남기지 마세요.’는 ‘-지 말다’를 사용한 명령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안 하려고.’의 ‘안 하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단순 부정이 아니라 의지 부정이다.

② ㉡의 ‘안 왔으면’은 ‘왔으면’의 단순 부정이다.

③ ㉢의 ‘아니 땀’은 부정 부사 ‘안(아니)’이 사용된 짧은 부정이다.

④ ㉣의 ‘못 해!’는 능력 부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정 표현이다.

언어 08

본문 243~246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①

01 담화의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내립시다.’는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상황에서는 청유의 의미가 아니라 ‘내려야 하니 비켜 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의 답은 ‘자리가 (비어) 있다.’와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②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나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맞서 싸울 때에는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데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③ ‘우리 어린이’에서 ‘우리’는 ‘우리 같이 가자.’에서처럼 1인칭 대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상(청자인 ‘어린이’)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04 조사의 의미 이해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났다.’에서 ‘로’는 ‘원인’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를 대표로 뽑았다.’에서 ‘로’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각각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의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다.’에서 ‘로’는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고 있고, ㉡의 ‘그들은 갈등을 대화로 해결했다.’에서 ‘로’는 ‘수단’을 나타낸다.

㉣ ㉠의 ‘로’는 ‘원인’을 나타내고, ㉡의 ‘로’는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낸다.

㉤ ㉠의 ‘로’는 ‘수단’을 나타내고, ㉡의 ‘로’는 ‘자격’을 나타낸다.

㉥ ㉠의 ‘로’는 ‘원인’을 나타내고, ㉡의 ‘로’는 ‘수단’을 나타낸다.

05 반의 관계의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판매-구매’는 한 개념만은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관계이므로 상호 의존적으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관계인 (다)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출석-결석’은 중간 개념이 없으므로 상호 배타적으로 양분하는 관계인 (가)에 해당한다.

③ ‘넓다-좁다’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중간 영역이 존재하므로 상대적 정도 개념의 양 극단을 나타내는 관계인 (나)에 해당한다.

④ ‘오른쪽-왼쪽’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존적이어서 한 개념만은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개념의 관계인 (다)에 해당한다.

⑤ ‘가르치다-배우다’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존적이어서 한 개념만은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개념의 관계인 (다)에 해당한다.

01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부른다’를 꾸며 주는 ‘예쁘게’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므로 서술어의 자릿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에서의 ‘부른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에서 ‘돌다’는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는 뜻으로서, 주어 하나만 필수적인 한 자리 서술어이다.

㉡ ㉡에서 ‘집다’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물건을 잡아서 들다.’라는 뜻으로서, 주어와 목적어가 필수적인 두 자리 서술어이다.

㉢ ㉢에서 ‘어울리다’는 ‘서로 잘 조화되어 자연스럽게 보이다.’라는 뜻으로서, 주어와 부사어가 필수적인 두 자리 서술어이다. ‘어울리다’가 쓰인 문장의 부사어에는 ‘에’, ‘에게’, ‘와/과’ 등의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

㉣ ㉣에서 ‘교환하다’는 ‘서로 주고받고 하다.’라는 뜻으로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필수적인 세 자리 서술어이다. ‘교환하다’가 쓰인 문장의 부사어에는 ‘와/과’ 등의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

02 높임 표현의 쓰임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영호’의 ‘아버지’는 화자인 ‘큰아버지’에게는 동생이 되므로 높임 필요가 없으나, 청자인 ‘조카(영호)’를 의식하여 ‘나가셨니(나가-+ -시-+ -었-+ -니)’에서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손자에게 자기 아버지는 높여야 할 대상인데 청자인 할아버지를 의식하여 ‘잡니다’에서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곧 화자에게는 높여야 할 대상인데 청자를 의식해서 높이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압존(법)’이라고 한다.

② 회사 경비원에게 방문객은 낮선 사람이므로 존중해 높이는 말을 써야 한다. ‘오셨습니까’에 주체 높임의 ‘-시-’와 하십시오체 상대 높임의 ‘-습니까’가 쓰였다. 높임 만한 청자에게 높임 표현을 쓴 예이다.

③ 회사 직원은 상사에게 높임말을 써야 하므로, 주체 높임의 ‘-시-’와 높임의 보조사 ‘요’를 사용하여 ‘가시지요’로 표현하였다. 높임 만한 청자에게 높임 표현을 쓴 예이다.

④ 동생에게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부사어 ‘어머니께’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드리다’가 사용되었다. 청자인 형을 의식해서 높이지 않아도 될 대상을 높인 경우가 아니다.

문법 05 본문 219~221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③



03 명령문의 특성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의 서술어는 ‘비켜 줘’이고 그 주어는 생략된 청자(2인칭)이다. 명령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2인칭이다. 참고로 ‘내가 지나가게’는 안긴절(부사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명령문은 앞으로의 행동을 지시한다. 즉, 명령문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지만, ‘-겠-’을 쓰지 못함을 ㉔에서 알 수 있다.
- ② 언니가 동생에게 발화한 명령문은 “빨래를 걸어라.” 혹은 “빨래를 걸어.” 등일 것인데, 간접 인용되어 ‘빨래를 걸으라고’로 나타났으므로 명령문이 간접 인용되면 명령형 어미로 ‘-으라’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앞에 붙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형이 나에게 할머니 댁에 가라고 했다.”와 같이 ‘-라’가 쓰인다.
- ③ 일반적인 부정 표현의 서술어는 ‘않다’나 ‘못하다’이지만, 금지하는 명령(부정 표현의 명령)에서는 ‘걱정하지 마’에서처럼 보조동사 ‘말다’를 사용한다.
- ⑤ ㉔에서 서술어는 형용사 ‘좋아라’인데 이 명령형이 쓰인 문장은 비문법적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04 문장의 짜임새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㉔: 종속적 연결 어미 ‘-더라도’로 앞뒤가 이어져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㉕: 대등적 연결 어미 ‘-고’로 앞뒤가 이어져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㉖: 명사형 어미 ‘-기’가 쓰인 명사절 ‘우리가 그 일을 하기’가 안겨 있는 안은문장이다.
- ㉗: 종속적 연결 어미 ‘-면’으로 앞뒤가 이어져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㉘: 관형사형 어미 ‘-니’가 쓰인 관형사절 ‘어제 간’이 안겨 있는 안은문장이다.

05 안은문장의 특성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의 안긴절은 ‘안 들어오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 ‘밤이 늦도록’이다. ‘밤이 늦도록’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또한 ‘밤이 늦도록’의 주어 ‘밤이’는 안은문장의 주어인 ‘아버지께서는’과 다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의 안긴절은 관형사절 ‘언니가 빌려 온’이고 ‘책’을 꾸며 주고 있다.

② 주어와 서술어의 짝을 지어 보면 안긴절은 명사절 ‘진영이가 그 선행의 주인공임’이고, 거기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안은문장의 주어가 되었다. 안은문장의 주어와 짝을 이루는 서술어는 ‘밝혀졌다’이다.

④ ㉔에서 형의 발화는 직접 인용되어 큰따옴표 속에 쓰였다. 이는 형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⑤ ㉔의 안긴절은 ‘성격이 아주 너그로우시다’로서 주어 ‘성격이’와 서술어 ‘너그로우시다’가 쓰인 서술절(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우리 선생님은’이다.



문법 06

본문 222~224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1 문장 성분과 품사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에서 ‘오늘’은 동사 ‘만나다’를 수식하므로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이다. 또한 이 경우 ‘오늘’의 품사도 체언(명사)이 아닌 부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새, 옛’의 품사는 관형사이며, 뒤에 오는 체언인 ‘옷, 친구’를 수식하므로 관형어이다.
- ② ‘착한’은 형용사 ‘착하다’의 관형사형이다. 다만 이 문장에서는 ‘친구’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 ③ ‘큰’은 형용사 ‘크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니’가 결합한 관형사형이다.
- ⑤ ‘형의’는 해당 문장에서 ‘옷’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므로 그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02 어미의 특성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문장의 종결이나 연결의 기능을 결정하는 어미는 ‘-다’, ‘-고’ 등과 같은 어말 어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말 어미는 용언의 가장 끝에 있는 어미이며, 선어말 어미는 ‘그 뒤에 반드시 다른 어미가 와야만 하는 어미’이므로 항상 어말 어미 앞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끝났겠다’는 용언 어간 ‘끝나-’와 어미 ‘-았-’, ‘-겠-’, ‘-다’가 결합된 단어인데, 이때 ‘-았-’과 ‘-겠-’이 선어말 어미이다.



- ④ ‘크시다’는 용언 어간 ‘크-’와 어미 ‘-시-’, ‘-다’로 분석되는데, 이때 ‘-다’는 어말 어미이며, ‘-시-’는 그 앞에 위치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지금 단풍이 한창이다.’와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한 ‘지금 단풍이 한창이겠다.’를 비교해 보면, 뒤의 문장은 특정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보조 용언의 특성과 사용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보조 용언을 사용하지 않고 본용언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에서 보조 용언인 ‘보다’가 생략된 ‘민수는 새 옷을 입었다.’도 하나의 문장이 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의미적으로 본용언은 문장 안에서 실질적인 주된 의미를 담당하고, 보조 용언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가)에서 본용언인 ‘입다’가 핵심 의미를 나타내고, ‘보다’는 ‘시험 삼아 한번 해 보다’라는 의미를 더한다.
- ③ (가)와 (나)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용언은 ‘입다’와 ‘보다’이므로 이들이 본용언이다.
-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할 때에는 본용언 어간 뒤에 ‘-아/ -어’, ‘-고’ 등이 쓰여 ‘입다+보다 → 입어 보다’, ‘보다+있다 → 보고 있다’ 등이 된다.
- ⑤ (다)의 ‘기다리고 있어 봐’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용언은 ‘기다리다’이므로 이것이 본용언이고, 보조 용언으로는 ‘있다’와 ‘보다’ 2개가 사용되었다.

04 보조 용언의 의미 이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친구인가 보다’의 보조 용언은 ‘보다’로 이는 해당 문장에서 ‘(두 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을 추측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떡이 버리다’의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하는 말로 이는 완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사 났어’의 보조 용언은 ‘놓다’로 ‘놓았어’가 줄어들어 ‘났어’로 쓰일 수 있다. 이때 ‘놓다’는 ‘사다’라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시들어 가네’의 보조 용언은 ‘가다’로 이는 앞의 동사 ‘시들다’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④ ‘가고 있어’의 보조 용언은 ‘있다’로 이는 현재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05 문장의 구조 탐구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관형사절은 문장 안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절을 의미한다. ‘어제 만난 친구를 또 만났다.’라는 문장에서 ‘어제 만난’은 ‘어제 만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친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형사절은 문장 ㉠, ㉡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과 ㉡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가 여러 번 사용되었고, ㉢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2회 사용되었다. ㉠~㉢은 모두 한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는 문장들이다. 이러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② ㉠은 주어를 ‘아버지가’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서술절로 분석할 수 있다. 서술절의 특성에 대해 찾아보는 것은 적절한 탐구 활동이다.
- ③ ㉡에서는 주격 조사와 결합한 문장 성분이 여러 개인데, 이 중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은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⑤ ㉢에서 ‘짜장면’과 ‘세 그릇’은 모두 목적격 조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 둘이 나타내는 의미 관계를 설명해 보는 것은 적절한 탐구 활동이다.

문법 07

분문 225~228쪽

- 01 ②
- 02 ④
- 03 ④
- 04 ③
- 05 ①

01 부사어의 의미 활용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는 골목길로 발길을 돌렸다.’에서 ‘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이는 의미와 예문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어려서부터’의 ‘부터’는 ‘어떤 상태의 시작’을 나타내는 조사로 ‘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가 아니다.
- ③ ‘우리 반보다’의 ‘보다’는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낸다. 해당 문장에서 ‘이유’의 의미는 ‘많으니까’의 ‘-으니까’를 통해 드러난다.



④ 어떤 일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는 ‘(으)로써’로 ‘대화로서 해결하다.’, ‘말로써 규정하다.’처럼 쓰인다. ‘모둠장으로서’에서의 ‘으로서’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낸다.

⑤ 이 예문에서 ‘에서’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낸다. ‘출발점’을 의미하는 예문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 걸린다.’ 등이 있다.

02 문장의 중의성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의 문장은 간접 사동문으로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혀 주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관형어 ‘예쁜’이 ‘언니’를 수식하면 ‘예쁜 언니가 소유하고 있는 목걸이’라는 의미가 되고, ‘예쁜’이 ‘언니의 목걸이’를 수식하면 ‘언니의 예쁜 목걸이’로 이해되므로 중의성이 발생한다.

② ‘나는 친구와 함께, 친구 동생을 만났다.’로 이해되는 경우와 ‘나는 혼자서, 친구와 친구 동생을 만났다.’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의적이다.

③ 부정 표현으로 인한 중의성이 발생하는 예로 ‘모자를 쓰지 않고 누나가 학교에 갔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누나가 모자를 쓰고 갔다.’ ‘누나가 아닌 형이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갔다.’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신다’, ‘입다’, ‘벗다’ 등의 동사는 ‘-고 있다’와 함께 쓰이면 동작의 진행과 함께 동작 완료 후의 상태의 유지를 의미할 수 있다. 즉, ‘구두를 신는 동작을 진행함.’과 ‘구두를 신은 상태를 유지함.’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

03 인용절의 특성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보기〉의 2~4행에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의 구별에 대한 내용이 있다. 직접 인용절은 피인용문(인용되는 말이나 글, 생각 등)을 원래 문장 그대로 가져오는 (나)와 같은 것이고, 간접 인용절은 (다)처럼 피인용문을 변형하여 따오는 것이다. 피인용문이 누구의 말인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용 동사에 대한 내용이다. 인용 동사로는 ‘이야기하다, 소리치다’ 등 말하는 행위와 관련된 동사들이 사용된다.

② (다)에서 ‘자기’는 앞에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앞서 언급된 ‘영수’를 가리킨다. 따라서 ‘자기가’를 생략한 ‘영수는 나에게 민회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도 (다)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③ (나)의 인용절에서의 주어는 ‘나’로 나타나고, (다)의 인용절에서의 주어는 ‘자기’로 나타난다. 따라서 (나)와 (다)의 인용절에서의 주어는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나)는 직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이고, (다)는 간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이다. (나)에서는 ‘라고’가, (다)에서는 ‘고’가 사용된 것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04 구어 문장의 어순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에서 피수식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살까’와 ‘선물’이며, 이를 수식하는 ‘같이’와 ‘작은’은 모두 피수식어의 앞에 쓰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문장의 주어인 ‘정우’가 문장의 처음에 등장하지 않아도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정우 전학 가잖아, 다음 주에.’, ‘정우 다음 주에 전학 가잖아.’처럼 동일한 의미의 문장도 어순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④ ‘나’는 ‘수업(을) 마치다’, ‘작은 선물이라도 같이 사다’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수업(을) 마치다’의 경우 목적어가 서술어의 앞에 오지만, ‘같이 살까, 작은 선물이라도?’의 경우 목적어가 서술어 뒤에 왔다. 즉, 서술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대화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는 부사어 ‘꼭’이 서술어 ‘쓰자’보다 앞에 쓰였다.

05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활용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읽힌다’와 ㉡ ‘읽히셨음’에 사용된 접사는 모두 ‘-히-’이지만, ㉠은 ‘그 소설이 널리 읽힌다.’의 의미로 사용된 피동사이며, ㉡은 ‘선생님께서 내 짝이 책을 읽게 시키셨다.’의 의미인 사동사이다. 따라서 형태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어지다’는 일부 동사에 어울려 피동 표현으로 쓰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어지다.’처럼 쓰일 수는 없다.

③ ㉢은 동사 ‘부르다’의 피동사이다. ‘선생님께서 이름을 부르다.’를 피동문 ‘이름이 선생님께 의해 불리다.’로 바꿀 수 있다.

④ ‘부딪히다’는 동사 ‘부딪다’의 피동사이다. ‘부딪히다’는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⑤ ㉣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로 사동 표현 ‘보게 하다’와는 다른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철수에게는’의 ‘에게’는 ㉠의 의미로 쓰였고, ‘언니에게는’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 ② ‘친구들에게’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고, ‘삼촌에게는’의 ‘에게’는 ㉠의 의미로 쓰였다.
- ③ ‘우리에게’의 ‘에게’는 ㉠의 의미로 쓰였고, ‘너에게는’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 ⑤ ‘돼지에게는’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고, ‘나에게는’의 ‘에게’는 ㉠의 의미로 쓰였다.

05 동음이의 관계와 다의 관계 이해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다리가 부러진 책상을 고치러 갔다.”의 ‘다리’는 다리⁰¹ 「2」의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의 의미로 쓰였다. ㉢의 의미로 쓰인 ‘오징어 다리’의 ‘다리’와는 다의 관계를 맺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를 맺는 예이다.
- ② “이 안경은 다리 하나가 없다.”의 ‘다리’는 ㉠이 아니라 다리⁰¹ 「4」에 해당하는 예이다. 또한 답지에 제시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를 맺는 예이다.
- ④ “이 물건은 우리에게 오는 데 다리를 여럿 거친 것이다.”의 ‘다리’는 ㉢이 아니라 다리⁰² 「3」에 해당하는 예이다. 또한 답지에 제시된 두 단어는 다의 관계를 맺는 예이다.
- ⑤ 두 단어는 다의 관계를 맺는 예이다.

문법 05 본문 250~253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1 문장 성분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이고, ㉡은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진 관형사절로서의 관형어이다. 부사어와 관형어는 공통적으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며 문장의 부속 성분이고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 ㉣, ㉤가 들어 있는 ①이 정답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가 필수적인 것도 있고 주어, 부사어가 필수적인 것도 있고 주어, 보어가 필수적인 것도 있다. 그

러나 관형어가 필수적인 서술어는 없다. 즉 ㉣는 부사어에만 해당하고 관형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세 자리 서술어 역시 관형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즉 ㉢ 역시 부사어에만 해당하고 관형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⑤ ㉣, ㉤가 아니다.

02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 이해를 바탕으로 비문 파악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 ‘생각’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 ‘나와 평등하다는’에 주어가 빠져 있다. ‘타인이/타인도’ 정도의 주어를 써야 한 자리 서술어 ‘평등하다’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갖추어 쓴 것이 된다. ㉢: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이 주어인데 그것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주변 환경을 닦하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와 같이 써서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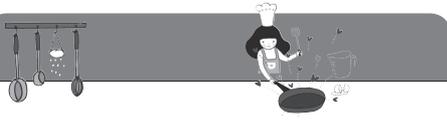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과 형 친구를 비교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형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나와 형을 비교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 문장이다. 그러나 문장의 필수 성분이 빠져 있거나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② ㉢: ‘민다’의 피동사로서 ‘민기다’나 ‘민어지다’를 쓸 수 있는데 불필요한 이중 피동 ‘민겨지다’를 사용한 문장이다. 이 역시 군더더기 표현이지만, 문장의 필수 성분이 빠져 있거나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④ ㉢: 안길철 속에서 주어에 쓰이는 ‘은/는’은 ‘이/가’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류의 역사가 ~”로 수정해야 한다. 이 역시 비문이지만, 문장의 필수 성분이 빠져 있거나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⑤ ㉢, ㉤이 아니다.

03 관형사절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 우리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으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부사어이다.
- ㉣: 친구가 그 소설가를 알고 있으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주어이다.
- ㉤: 내가 가방에 이름을 적어 놓았으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부사어이다.
- ④: 학생들이 키가 크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주어이다.
- ㉤: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목적어이다.



04 대명사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문문의 종류 구별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 '무엇'을 상대에게 묻고 상대는 그에 대해 대답을 해 준 대화에서 쓰였으므로 설명 의문문이다.
- ㉡ 대답의 내용으로 보아 '누구'의 정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연애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해석되므로 판정 의문문이다.
- ㉢ '뭐'를 상대에게 묻고 상대는 그에 대해 대답을 해 준 대화에서 쓰였으므로 설명 의문문이다.
- ㉣ '어디'를 상대에게 묻고 상대는 그에 대해 대답을 해 준 대화에서 쓰였으므로 설명 의문문이다.
- ㉤ 대답의 내용으로 보아 '언제'의 시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만날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해석되므로 판정 의문문이다.

05 높임 표현의 실현 방식 이해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 '주무시다'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자다'를 대신해서 쓰는 특수 어휘이고, '계시다'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있다'를 대신해서 쓰는 특수 어휘이다.
- ㉢ '모시다'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데리다'를 대신해서 쓰는 특수 어휘이고, '뵈다'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만나다' 혹은 '보다'를 대신해서 쓰는 특수 어휘이다.
- ㉣ '택'은 높임의 대상이 사는 '집'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가장 일반적인 주체 높임의 방법이나 <보기 2>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 ㉢ 객체를 높이는 부사격 조사 '께'는 <보기 2>에서 쓰이지 않았다.

문법 06

본문 254~257쪽

- 01 ⑤ 02 ① 03 ② 04 ② 05 ①

01 문장의 짜임새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과 ㉡은 종속적 연결 어미 '-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 부분은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 서술어는 그 안에 또다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므로 서술절이다.

- ② 서술절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등과는 달리 안긴절을 만드는 별도의 어미를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 ㉣에는 안긴절을 만드는 어미가 없다.
- ③ ㉣에서 엄마가 한 말을 간접 인용한 부분이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어깨춤을 추겠다고'이다. 그러므로 ㉣의 ㉤는 ㉣ 전체에 인용절로 안겨 있다.
- ④ ㉣에서 어깨춤을 출 사람은 엄마이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전체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02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것'의 의미 이해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진수가 오는 것'에서 '것'은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수가 오는 사건 자체를 가리킨다. 또한 '진수가 오는 것'은 명사형 어미 '-기'를 써서 '진수가 오기'로 바꿀 수도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내가 먹다 남긴 것'에서 '것'은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고, 제시한 문장은 그것을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③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에서 '것'은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고, 제시한 문장은 그것이 어떤 책인지 묻는 뜻으로 해석된다.
- ④ '내가 본 것'에서 '것'은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고, 제시한 문장은 그가 말하는 영화가 그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 ⑤ '푸른 것'에서의 '것'과 '넓은 것'에서의 '것'은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고, 제시한 문장은 그것이 각각 하늘과 들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03 지문 내용을 다른 문법 요소에 확장해 추론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으)ㄴ 것이-'는 형식적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어가 '것'을 꾸며 준 것에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겠-'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므로 지문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사례로 가장 알맞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안' 부정과 '못' 부정이 구별되는 의미를 가졌음은 형식적으로 둘 이상으로 구성된 말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 ③ '-(으)ㄴ'이 형용사에 붙을 때와 동사에 붙을 때의 시제 해석이 달라지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둘 이상으로 구성된 말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 ④ '-었-'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것처럼 '-느-' 역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둘 이상으로 구성된 말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 ⑤ '-니'가 의문형 어미로도 쓰이고 해라체 상대 높임 어미로도 쓰이는 사실은 하나의 형태소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임을 보이는 것



이지 형식적으로 둘 이상으로 구성된 말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04 시간 표현의 의미 이해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지금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 문장이다. '-겠-'이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현재 또는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듯이 전달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의미는 '-더-'를 통해 이루어진다.

③ 외할아버지께서 오신 과거 사건의 결과는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은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지 않는 것, 즉 현재의 상황이 과거 사건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는 '-있었-'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은 현재 아이들의 노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가 '-고 있다'를 통해 나타나 있다.

⑤ ㉠은 장미가 핀 사건이 끝나고 그 결과인 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러한 의미가 '-어 있-'을 통해 나타나 있다.

05 능동문과 피동문, 주동문과 사동문의 관계 이해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피동문인데, 피동 표현 '그는 순위가 밀리다'는 그에 대응하는 능동 표현인 '나를 순위가 밀다' 혹은 '내가 순위를 밀다'와 같은 표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에 속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주동문인데, 그에 대응하는 '내가 할머니께 아기를 업히다'와 같은 사동 표현이 성립하므로 대응하는 사동문이 있는 주동문, 즉 ㉠에 속한다.

③ ㉠은 사동문인데, 그에 대응하는 '아이가 옷을 입다'와 같은 주동 표현이 성립하므로 대응하는 주동문이 있는 사동문, 즉 ㉠에 속한다.

④ ㉠은 주동문인데, 그에 대응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더위를 먹이다'와 같은 사동 표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응하는 사동문이 없는 주동문, 즉 ㉠에 속한다.

⑤ ㉠은 사동문인데, 그에 대응하는 '눈이 불다'와 같은 주동 표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 즉 ㉠에 속한다.

문법 07

본문 258~260쪽

- 01 ②
- 02 ⑤
- 03 ④
- 04 ④
- 05 ①

01 관형사절의 종류 이해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관형사절 '그 건물이 무너진'에는 빠진 요소가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사고'는 '그 건물이 무너진' 안의 어떤 성분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고'는 전체 문장과 안긴절의 공통 요소가 아니다. 또한 '그 건물이 무너진'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니' 앞에 종결 어미가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관형사절 '그 유명한 작품을 그린'에는 주어 빠져 있다. '홍길동 씨가 화가이다.'에서의 '화가'가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을 공통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는 해당된다.

③ 관형사절 '이 사진을 찍은'에는 부사어가 빠져 있다. '정희는 공원에 오늘 다시 갔다.'에서의 '공원'이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을 공통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어도 빠져 있는데 그것은 관형사절의 주어 대상이 문장 전체의 주어 대상인 '정희'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는 해당된다.

④ 관형사절 '내가 어제 본'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다. '영화는 부산 국제 영화제 개막작이다.'에서의 '영화'가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을 공통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는 해당된다.

⑤ 관형사절 '내일 비가 온다'에는 빠진 문장 성분이 없다. 따라서 ㉠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 '-는' 앞에 종결 어미 '-다'가 있으므로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02 문장 성분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부속 성분 중 하나로서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들을 꾸며 줄 수 있고, 심지어 절이나 문장을 꾸며 줄 수도 있다. 또 부사어는 '및'처럼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거나 '그리고, 그러나'처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술어가 의미하는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②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이다.

- ③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다.
- ④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을 꾸며 주는 데에 쓰이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03 문장 성분의 종류 파악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⑥은 서술어이다. ㉔ 역시 본용언 ‘일하다’와 보조 용언 ‘싶다’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과제’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로서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이다.
- ② ㉒은 ‘발표하는’을 꾸며 주는 부사어로서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이루어져 있다.
- ③ ㉓은 서술어 ‘바라는데요’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어떤 사람이 되기’는 ‘(선배는) 어떤 사람이 되기’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보여와 서술어가 있는 절인데, 명사절로 안겨 있다. ㉓은 이 명사절에 다시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것이다.
- ⑤ ㉕은 문장의 다른 부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이다.

04 피동문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발을 밟혔다’는 수지가 당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동문인데 목적어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기를 안겼다’는 ‘그 형’이 ‘진희’에게 가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동문이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돌을 옮겼었다’는 ‘명호’가 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타동사가 쓰인 능동문이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상해를 입혔다’는 ‘그 사람’이 ‘형’에게 가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동문이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간격을 넓혔다’는 ‘동주’가 ‘책상’에 가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동문이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05 부정문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안’ 부정문이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 대상이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단순 부정(객관 부정, 중립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㉑은 ‘해’가 의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부정으로 해석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㉒에서 ‘있다’를 부정하기 위해 짧은 부정의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없다’라는 별개의 어휘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책상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처럼 긴 부정의 ‘안’ 부정문은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㉓은 상대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 즉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에는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이 짧은 부정이든 긴 부정이든 사용되지 않고, ‘말다’의 긴 부정만이 사용된다.
- ④ ㉔은 ‘알다’의 부정이 별개의 어휘 ‘모르다’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알지 못하다’와 같은 긴 부정의 ‘못’ 부정문에서만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 ⑤ ㉕은 ‘넉넉하다’가 ‘-지 않다/못하다’의 긴 부정으로 부정됨을 보여 주고, ‘안’이나 ‘못’이 꾸며 주는 짧은 부정으로는 부정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문법 08

본문 261~264쪽

- 01 ③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손님’의 발화 의도는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손님’이 “다음에 올게요.”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에 오겠다고 약속하는 의도로 발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가게를 나가면서 점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의미로 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원’이 ‘손님’의 발화 의도를 다음에 온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고 “다음에 오시는 약속은 언제로 잡을까요?”라고 물은 것은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관객 2’는 ‘관객 1’의 발화 의도를 ‘비어 있는 자리라면 앉으려고 한다.’로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 ② ‘엄마’는 ‘딸’의 발화 의도를 ‘밖에 비가 오니 우산을 달라.’로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 ④ ‘학생’은 ‘교사’의 발화 의도를 ‘교실의 온도가 너무 낮으니 냉방기를 꺼라.’로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 ⑤ ‘행인’은 ‘관광객’의 발화 의도를 ‘경복궁이 어디 있는지 길을 알려 달라.’로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